

느헤미야 -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본

5/15 월요일

아침의 누림

히 10:22

22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계 12:5

5 그 여자가 아들, 곧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히 4:16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히 7:26

26 이와 같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들보다 높아지신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신 분이십니다.

히 11:6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계 11:15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느 2:17

17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처한 심각한 상태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시다."

성경에 따르면, 여자의 씨는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씨는 주로 주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이기는 이들 또한 이 씨의 일부이다. 여자의 씨는 교회를 포함하며, 특별히 이기는 이들을 포함한다. ... 여자의 씨가 사탄을 상하게 하는 것의 성취는 요한계시록 12 장에 나오는 사내아이에게서 볼 수 있다. 유일한 이기는 이이신 주님은 모든 이기는 이들을 포함하신다(계 12:10-11).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한 그분의 태도를 바꾸실 때, 그분은 시대적인 움직임을 가지신다. ...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움직임은 요한계시록 12 장에 나온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종결하시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 오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목적은 평범하거나 일반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시대를 종결하시고 또 다른 시대를 이끌어 오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대적인 도구를 얻으셔야 한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문판 부록, 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내아이의 휴거는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 온다. 사내아이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게 한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한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움직임에서 사람을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묶으시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묶는 것에 근거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푸시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푸는 것에 근거한다. 모든 일은 다 교회에게 달려 있다.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은 주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휴거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가 아니라 주님께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모든 시대적인 움직임들 가운데 사내아이의 휴거가 가장 위대한 움직임이다. 왜냐하면 사내아이의 휴거는 사람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없애고 왕국을 이끌어 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빛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 줄 것이지만, 힘과 능력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사용되려면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나님의 갈망은 피조물들이 타락한 피조물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교회 전체가 사탄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실패했다. ... 하나님의 목적은 이기는 이들에 의해 성취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역하기 때문이다. ... 하나님은 시대적인 움직임을 갖기 위해 언제나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을 얻으신다.

사백 년 후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얻으셨다. ... 모세는 물에서 건져 내어졌다. 그는 물에서 나왔다. 그런 다음에 이집트에서 나왔다. 모세는 죽음을 이겼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루시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셨다. 모세는 이집트 중의 이집트인 궁전에 거했다. 그의 영이 이집트를 떠났을 뿐 아니라 그의 몸도 이집트를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 "가십시오."라고만 말할 수 있을 뿐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은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시대적인 움직임들은 한 사람에게 근거한다.

이것이 이기는 이들의 원칙이다.(영광스러운 교회, 영문판 부록, 4-5, 7 쪽)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나아오십시오”(영어 회복역 참고)라고 말한다. …우리는 세 가지 것, 곧 지성소와 은혜의 보좌와 하나님 자신께 나아와야 한다(비교 히 10:22, 4:16, 7:25, 11:6).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나아오라.

히브리 믿는 이들은 뒤로 물러가려는 위협에 있었다. 그들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을 때, 그들이 나아오도록 격려하기 위해 히브리서가 쓰였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는 이들에게 “나아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나아오십시오”라고 말했다.

이것은 이 저자가 특정한 곳에 있었고, 그의 서신을 읽는 이들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나아오기를 원했음을 의미한다. … 이 책을 쓸 때 저자는 바로 지성소 안에 있으면서,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나아오라고 부르고 있었다.(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32 장, 38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32 장

5/16 화요일

아침의 누림

창 3:15

15 또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계 12:1-2

1 하늘에 큰 표징이 보였습니다.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발 바로 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2 그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여,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해산하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요 15:5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 2:14

14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계 2:26-27

26 이기는 이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27 그는 질그릇들을 부수듯이,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권위를 줄 것이다.

계 3:21

21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여자의 씨이신 주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주님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사탄을 멸망시키셨다(비교 히 2:14, 요일 3:8).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을 멸망시키고 계셨을 때 뱀은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이것은 사탄이 십자가에 주 예수님의 발을 못 박음으로 그분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뜻한다(시 22:16).

창세기 3 장 15 절에 언급된 여자는 첫째로 하와이고, 둘째로 하와가 상징하는 것처럼 처녀 마리아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다.

그러므로 여자의 씨는 주로, 마리아에게서 나신 주 예수님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 장에서 우리는 여자의 씨에 관해 더 발전된 것을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 12 장에 묘사되어 있고 창세기 3 장 15 절에 상징으로 나와 있는 여자는 우주적인 여자이며, 이 여자 안에는 사내아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다(계 12:1-2, 5). 성경에 따르면 여자는 약함을 나타내는데, 이는 여자가 더 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다(벧전 3:7). 남자 특히 사내아이는 강함을 나타낸다. …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다소 약한 여자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는 더 강한 부분 곧 이기는 이들인 사내아이가 있다. … 그러므로 사내아이 또한 여자의 씨의 일부이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19 장, 279-28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이 사내아이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이다. … 이 단체적인 사내아이는, 사내아이의 머리와 중심과 실재와 생명과 본성이신 주 예수님을 포함한다. … 시편 2 편 8 절과 9 절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으신 주 예수님께서 쇠막대기로 민족들을 다스리실 것을 예언한다. 요한계시록 2 장 26 절과 27 절은 교회 안의 이기는 이들이 쇠막대기로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고, … 요한계시록 12 장 5 절은 사내아이가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 주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쇠막대기로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2 장 5 절에 나오는 사내아이는 주 예수님과 교회 안의 이기는 이들 모두를 포함한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20 장 4 절은 그리스도와 부활한 이기는 이들이 천 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 장에 나오는 사내아이는 주 예수님 개인만도 아니고 주님과 분리된 이기는 이들만도 아니며, 이기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이다. 그리스도 자신은 최초의 이기는 이이시다(계 3:21). 인도하는 이기는 이이신 주님은 이기는 이들의 머리와 중심과 실재와 생명과 본성이시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는 주 예수님과 이기는 이들을 포함한 더 강한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과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사내아이를 구성한다.

주 예수님은 사내아이이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 ...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원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다. ... 사내아이의 근원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이다. ... 사내아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자의 씨이다. 주 예수님은 그러한 근원에서 나온 씨이셨다.

인도하는 형제들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오, 주님, 당신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님, 당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당신을 신뢰합니다.” 만일 인도하는 형제들이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자이다.

한 면으로 우리는 여자이고 또 다른 면으로 우리는 여자의 씨이다. ...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원에서 나온 씨만이 강해질 수 있다. 이것은 자신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다. 주 예수님 자신이 앞장서서 그러한 분이 되셨다. 그분은 사내아이의 머리이시다. 이제 그분은 또한 사내아이의 중심과 실재와 생명과 본성이시다. 원수 사탄이 어떻게 이 사내아이에게 대항해 싸울 수 있겠는가!(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19 장, 281-28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19-20 장

5/17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계 12:10-11

10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요 12:31

31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엡 3:16-18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엡 6:10-11

10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어지도록 하십시오.

11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사내아이가 있는 곳에는 원수를 위한 여지가 없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지만, 이 심판은 집행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이 심판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실패했다. 따라서 이기는 이들이 일어나 교회의 위치를 취하여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 ... 이기는 이들이 휴거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간 후에는 원수를 위한 자리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추구하는 믿는 이는 깨끗한 양심이 될 때까지 양심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양심이 깨끗하게 될 때, 양심은 쉽게 약해진다. ... 우리의 양심이 약해지면, 대적은 우리를 항상 비난하며 우리에게 자신이 옳지 않다는 느낌을 계속 갖게 한다. ...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덮어 주는 피로 말미암아 대적에게 대항해 서야 한다. ... 우리는 구속하는 피의 능력을 요구할 뿐 아니라 선포해야 한다.(위트니스리 전집, 1964년, 2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빛 안에서 본 신약의 개관, 4부, 38장, 733-73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자신의 몫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한 무리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다. 이 한 무리는 전체 중의 한 부분,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많은 사람들 중의 일부이다. 이들이 곧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이다.

사내아이의 휴거는 단지 몇몇 개인들이 들림 받는 문제만이 아니라, 더욱이 여러 시대에 걸쳐 진행된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인 옛 뱀이 수 천 년 동안 하나님과 싸워 왔다. 하늘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옛 뱀인 용과 전쟁을 벌인다. 이전에 그는 뱀이었지만, 지금은 용의 형태로 바뀌었다. 그의 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진 것이다. 그러나 사내아이가 들려 올라가자, 그

용은 더 이상 커질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러므로 사내아이의 휴거는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도록 사탄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기는 이들이 교회의 위치에 굳게 서서 교회가 했어야 할 일을 수행할 때, 그 결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난다' (계 12:10). 요한계시록 12 장의 사내아이는 바로 교회의 위치에 서 있는 이기는 이들로 구성되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아이가 휴거 되자마자 사탄이 하늘에서 내던져지고 왕국이 임하는 것이다.

이기는 이가 이기는 이인 이유는 자신을 위해 영광을 얻고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교회가 서야 할 위치에 서서 교회를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합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며,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서 있어야 할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실패했고, ...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위치에 서 있지 못했다. 다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위치에 서서 교회를 대신하여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 교회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이기는 이들이다. 이기는 이들이 한 일은 온 교회가 한 일로 간주된다. ...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그분은 만족하신다. 이것이 바로 사내아이의 원칙이다.

마치 사내아이가 산출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더 이상 방해받을 수 없는 것 같다. 오늘날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부르고 계시며,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기 원하신다.(워치만 니 전집, 34 권, 영광스러운 교회, 4 장, 112, 115, 118, 121-12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1964년, 2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빛 안에서 본 신약의 개관, 4부, 38 장

5/18 목요일

아침의 누림

느 2:17

17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처한 심각한 상태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시다.”

마 16:18-19

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19 내가 천국 열쇠들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그대가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그대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엡 1:10, 22-23

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분의 총만입니다.

느 2:18-20

18 나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있었다는 것과 왕이 나에게 한 말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합시다.”라고 말하였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그들의 손을 힘 있게 하였다.

19 그런데 호른 사람 산발랏과 신하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소식을 듣고

20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잘되게 해 주실 것이므로 그분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는 것이요. 그러나 그대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몫도 권리도 기념할 것도 없소.”

이스라엘이 칠십 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된 이기는 이였던 ‘느헤미야’로 인하여 시대적인 움직임을 가지셨다. 느헤미야는 진정으로 이기는 이였다. 심지어 이방인 왕을 섬기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얻으셨기 때문에 시대적인 움직임을 가지실 수 있었다.(영광스러운 교회, 영문판 부록, 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라기는 이스라엘이 포로 된 데서 돌아와 하나님의 집을 재건한 것에 대한 역사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 것이었다. 느헤미야기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것에 대한 역사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서 회복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느헤미야기의 핵심은 예루살렘성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 주고 보호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땅 위의 하나님의 거처와 가정인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함을 상징하는데,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도록 하나님의 행정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을 보호하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시는 것의 예표이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것의 예표이다. ...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그 집을 보호해 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그분의 왕국을 필요로 한다(비교 마 16:18-19).

느헤미야기 2 장 17 절부터 20 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축에 관한 말씀이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왕에게 반역하려고 그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느 2:19).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잘되게 해 주실 것이므로 그분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는 것이요. 그러나 그대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몫도 권리도 기념할 것도 없소.”(느 2:20) 이러한 대답은 느헤미야가 매우 진취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는 분명 겁을 먹지 않았다. 겁을 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원수들의 비방이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 절반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일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느 4:4-6).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조롱받고 비웃음을 받아도 우리는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진취적이어야 한다.

한편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싸울 준비를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을 믿었다. 이 문제에서도 그들은 진취적이었다. 겁을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매우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돕는 사람을 도우실 것이다. ... 역사에 의하면, 하나님은 겁을 내는 사람들을

돕지 않으신다. 진취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수 세기에 걸쳐 주님의 회복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지고 분발되었으며, 또 몇몇 사람들은 자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일반인이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담대했고, 강한 성격을 가졌으며, 진취적이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취적인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면, 바울과 마르틴 루터는 매우 진취적이었다. 니 형제님도 마찬가지였다.

느헤미야는 분명 진취적인 사람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부담에 자신을 자원하여 드렸다. 그는 예루살렘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부담을 가졌다. 그의 진취성은 하나님께 매우 많이 쓰임 받았다. (느헤미야 라이프스타디, 1 장, 1-2, 4-6 쪽, 2 장, 1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치만 니 전집, 34 권, 영광스러운 교회, 4 장; 영광스러운 교회, 영문판 부록

5/19 금요일

아침의 누림

느 4:17

17 성벽을 건축하는 이들과 짐을 운반하는 이들은 일하는 동안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살전 2:2

2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심한 싸움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다.

느 4:9

9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그들을 대비해 파수꾼을 세워 두었다.

딤후 1:7-8

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8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갇힌 사람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행 26:21-22

21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있던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22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날까지 서서 작은 사람에게나 큰 사람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 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훌륭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진취성이 부족하다. ... 각 대륙에 칠백 명의 진취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하여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느헤미야기를 읽을 때, 느헤미야의 진취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록 그는 왕의 종으로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그리고 성의 건축에 관한 자신의 부담에 진취적으로 그 자신을 자원하여 드렸다. 그는 또한 왕에게 간청할 때도 진취적이었다. 왕이 그의 슬픈 얼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왕에게 담대하고도 진취적으로 예루살렘성을 위한 그의

부담을 말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 요점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느헤미야 라이프 스타디, 2 장, 13-1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성경의 예표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것을 상징하는 타고난 역량과 미덕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이것에 대한 한 실례가 느헤미야와 그의 진취성이다. 그의 진취성은 그의 인간적인 행동에서 나타난 미덕이었다. 성경의 예표에서 타고난 것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신약에 나오는 예표들의 성취에서 모든 타고난 미덕들과 역량들은 십자가로 가야 한다. 그것들은 십자가에 놓여야 하며 끝나야 한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십자가에 두는 것은 그것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옳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에 따르면, 십자가는 단지 어떤 것을 종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타고난 것들을 부활 안으로 이끌도록 끝내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타고난 모든 것을 죽음과 장사로 이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장사 뒤에는 부활이 뒤따른다.

나는 모세가 강한 성격을 가졌다고 믿는다. ... 사십 세 때에 모세는 자원하여 진취적으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제한하셨고, 그가 실패하고 실망하게 하셨다. 그때 모세는 사십 년간 광야에서 '장사되었다'. 결국 부활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세를 부활시키셨다(출 3:2-6).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타고난 조성에 어떤 미덕과 역량이 있게 하셨다. 마태복음 25 장 15 절은 '달란트'가 우리 '자신의 능력', 즉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과 우리가 학습한 것으로 조성된 천연적인 능력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능력은 십자가에서 끝난 다음 부활 안으로 이끌려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역량과 능력과 미덕이 십자가로 이끌려 죽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부활 안에서 우리의 역량과 능력과 미덕은 타고난 생명 안에 있을 때보다 몇 배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것이지만, 죽음과 장사를 거쳐 이제 부활 안에 있다. ... 우리는 계속 존재하지만, 우리와 우리의 타고난 능력은 부활 안으로 인도되었다.

부활의 실재는 그 영이며, 그 영은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우리의 타고난 역량과 능력과 미덕은 죽음과 장사를 거침으로써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서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져야 한다.

우리가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모든 타고난 역량과 능력과 미덕은 우리 가운데서 '야수'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라는 '씨'를 땅속에 뿌리는 것은 결코 손실이 아니다.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그것을 잃지만, 결국 부활 안에서 수확이 있게 될 것이다. (느헤미야 라이프 스타디, 2 장, 14-1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34-39, 45 장

5/20 토요일

아침의 누림

느 13:14

14 "오, 저의 하나님! 이러한 일에 관하여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 저의 하나님의 집과

거기서 섬기는 봉사를 위하여 행한 충성스러운 일들을 지워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벤전 5:2-3

2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3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에 군림하듯 하지 말고, 양 떼의 본이 되십시오.

빌 2:3-4

3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4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딤후 3:2-4

2 왜냐하면 그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거만하며, 혈뜯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3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고, 자제하지 못하며, 난폭하고, 선을 사랑하지 않으며,
4 배신하고, 무모하며, 교만으로 눈이 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며,

느헤미야는 자신의 타고난 사람 안에서 살지 않고 부활 안에서 살았다. 그는 진취적이었지만, 그의 진취성은 여러 특징들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 그는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룩한 땅과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을 사랑하였다. ...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접촉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느 1:4, 2:4 상, 4:4-5, 9).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대표가 되었다. (느헤미야 라이프 스타디, 2 장, 1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느헤미야기 5 장 14 절부터 19 절까지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좋은 본을 본다. ...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총독에게 지정된 양식을 십이 년 동안 먹지 않았다 (14-15 절).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에만 전념하였다.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부하들은 모두 함께 모여 이 공사를 하였고 밭을 사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보수도 받지 않았음을 뜻한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주변 민족들에게서 그에게 온 사람들 외에도 유대인들과 지도자들 백오십 명에게 그의 상에서 먹을 것을 풍족히 주었다. 또한 그는 총독에게 지정된 양식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백성이 담당하는 건축하는 봉사가 버거웠기 때문이다(느 5:16-18).

총독으로서 왕의 지위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되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다윗을 포함한 모든 왕들과 달리 느헤미야는 이기적이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으며, 정욕에 빠지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게 약속하신 좋은 땅에서 최고의 뭇인 왕권을 누릴 자격이 있었다. 그는 이기적이기는커녕,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는 아마 유일하게 그러한 방식으로 처신한 국가 지도자였을 것이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교회들 안의 인도자들이 그의 본을 상고해 보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을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권익에는 좋은 땅과 성전과 예루살렘성이 포함된다. ... 비록 그는 왕이나 군대 대장과 같은 지위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을 돌보았다.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느헤미야는 전혀 이기적이지 않았다. ... 그는 사실상 유다 왕의 대행자였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느헤미야에게는 이기심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백성과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언제나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다. ... 그는 보수를 받기느커녕, 백오십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제공했다/(비교 느 5:14-18).

느헤미야는 또한 원수와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춘 이들 가운데 있었으며 야간 파수에도 참여하였다. 그는 이러한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직접 그 일에 참여하였다(느 4:17-23).

내가 믿기로, 육천 년간의 인간 역사 전체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결코 없었다. ... 우리는 느헤미야가 뛰어난 장로라고, 곧 장로가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최상의 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오늘날 교회들 안의 모든 장로들이 느헤미야와 같기를 바란다.(느헤미야 라이프 스타디, 1 장, 7-9 쪽, 5 장, 34-3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느헤미야 라이프 스타디, 1-5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34권, 영광스러운 교회, 4장;
영광스러운 교회, 영문판 부록*

찬송: 893 오늘은 원수 더 흉악하여 (中:641)

1 오늘은 원수 더 흉악하여지고
전쟁의 소리 더욱-더 맹렬하여졌다
음부의 반대가 더욱더 거세도
"내가 속히 가겠다."고 주 말씀하신다.

2 오늘은 시련이 더 참담해지고
음부도 세력 모아-서 총공격해온다
전쟁은 더욱더 어려워지지만
주 예수께서 더욱더 가까이 계신다.

3 말세에 주 말씀 혼잡하게 되고
사탄은 그의 모든-힘 다하여 싸운다
강한 힘 있어야 대적 이기리라
주 오면 찬송 넘치리 탄식 없으리라.

4 주 능력 안에서 강해져 전진해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싸우라
승리자 주님과 개가 부르려면
"내가 속히 가겠다."는 주 말씀 믿으라.

5 십자가의 길을 그 누가 택하라
누가 돌아서지 않-고 계속 나아가라
고통을 이기고 이 길을 간다면
주 예수 가까우신 것 기뻐하며 보리.

6 지금은 어둠이 더욱더 깊으나
휴거의 때에 영광-의 빛이 나타나리
거기서 주 보며 원수를 밟으리
주께서 이미 오신 것 기뻐 외치리라.

5/21 주일

아침의 누림

엡 6:13-19

1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4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의의 가슴받이를 착용하고,

15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16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19 또한 내가 입을 열 때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8:7-13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16 장

2 단계-주제별 연구
Being Saved in His Life
Scripture: 로마서 5:10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Romans, msgs. 41, 44-45; Crystallization-study of the Complete Salvation of God in Romans, ch. 1*
Supplemental Reading: None
Hymn: 499
Supplemental Reading: *Christ and the Cross, ch. 14*
Hymn: 299
churchinnyc.org/bible-study